

野, 청문회 미루고 '조국 의혹' 파상공세

한국당·바른미래·평화당, 딸 입시부정 논란에 사퇴 촉구
여 "청문회 개최 이달말이 시한" vs 야 "9월 초 개최" 대립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들 대부분을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야당의 사퇴 공세를 '신상털기·인격살인'이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민감한 이수인 딸 입시 문제를 파고들면서 사퇴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1일에도 조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한국당 등 야당에 역공을 퍼부었다. 국민적인 관심사로 휘발성이 큰 딸 입시 문제에 대한 여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주최 간담회를 열어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이 정치공세라면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히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은 거짓이라면 이 문제를 연결고리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원들이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확인해본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다"며 "사실이라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로 포장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조 후보자 딸의 의혹 논란과 관련 "제1저자로 등장했다고 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입시 부정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 배경에 '정권 흔들기' 의도가 깔렸다고 보고 공격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정국'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계속 이어가면서 문 대통령도 겨냥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조수석 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면서 문 대통령에 조 후보자 지명 철회 및 사과를 요구했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 딸을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에 빗대 '조유라'라고 부르면서 입시 문제를 연결고리로 파상공세를 계속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젊은 세대는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고, 부모 세대는 자식 얼굴 보기가 죄스럽게 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품으면 품을수록 정권의 침몰을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조 후보자 불가론을 거듭 밝혔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평등, 공정, 정의가 가중스러운 위선

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당장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조국 후보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면서 "더는 사퇴를 미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의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 후보자의 해명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2일 조 후보자 측에 그 제기된 의혹 및 논란에 대한 소명 요청서도 보낼 예정이다. 조 후보자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 준수를 위해 이달 말까지 청문회를 열고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9월 초 개최를 일단 맞서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조국 의혹 철저한 검증 거칠 것"

공식 입장... "청문회 통해 의혹 해소" 정면 돌파 의지

청와대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합리적인 의혹 제기도 있으나 일부 언론은 사실과 전혀 다르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

는 '정면돌파' 기조를 공식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수석은 "지금까지 언론에서 제기한 설과 가능성은 모두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조국 후보자라고 해서 남들과 다른 권리나 책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다른 장관 후보자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려대학교 학사 학위를 취소시켰달라는 국민청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 내용이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조국 수 싸움' 치열

興 속전속결 정면 돌파...野 장기전 통한 지지율 올리기 전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 확산으로 인사청문 정국에서의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단순히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국교섭 등 하반기 정국운영과 내년 총선까지 염두에 둔 진영 대결로 비화하고 있는 분위기다. 각종 의혹 공방 속에서 청문 정국을 속전속결식으로 정면 돌파하려는 여권과 현 국면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권의 선택이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중 청문회 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30일 정국교섭 대비 의원 워크숍이 예정되었으나 야당이 원한다면 이날 청문회를 하는 것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9월에 막 오르는 정국교섭에서 예산과 입법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청문 정국을 더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는 조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청문 정국이 지속될 경우 여론이 악화되면서 추석 방송 민심이 불온하고 내년 4월 총선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다르다. 다음 달 초에 청문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가 조 후보자를 포함해 7명이나 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낱짜가 중복되지 않게 잡으려면 다음 달 초 청문회가 불가피하다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특히 한국당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대형 화재'로 보고 있다. 즉 '조국 청문 정국'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끌고 가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국당이 24일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 이어 30일 부산 장외집회를 검토하고 있어 장외투쟁을 통해 대국민 여론전을 벌인 뒤 청문회를 하겠다는 전략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말로 활동 기한이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심사가 이번 청문 정국의 변수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에 끝내 집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 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고 패스트트랙 법안 의결을 시도함으로써 한국당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 "지소미아 중단 뒤 교류 제한" vs 야 "폐기 안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정경두 국방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오른쪽)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언론에서도 보도되듯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실질적인 교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심층적으로 고려할 것 같은데,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전략적 애매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지만 안보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안된다는 부분은 국방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언론에선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우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지소미아는 한일 분쟁에서 끼어들면 안 되는 문제였다"며 "(지소미아가 폐기되

면) '한미관계가 안 좋아지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당장의 영토 방어에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기여하는 바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뜻은 이번 (일본 정부의) 나쁜 버릇, 나쁜 행동을 교정하자는 것"이라고 폐기를 주장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현수 농식품 장관 후보 29일 인사청문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농해수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 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경험과 다양한 농정현안에 대한 업무 경력을 쌓은 농식품 분야 전문 관료"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가치 높음.
- 토지**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높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숙박시설**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 근린시설** 광주 서구 광천동 650-193 외2필지 토지 : 1747㎡(528.5평) 건물 : 3169.12㎡(958.78평)
지하1층 지상7층 **감정가 : 40억6천2백5십만원 최저가 : (70%) 28억4천4백만원**
- 공장** 곡성군 삼기면 경곡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창고**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다가구(원룸)** 광주 북구 풍향동 767번지 토지 : 227㎡(68.7평) 건물 : 749.02㎡(226.6평)지하1층 지상3층
감정가 : 6억7천7백만원 최저가 : 6억7천7백만원
- 아파트** 광주 동구 학동 삼익세라믹 63평형 **감정가 : 2억8천6백만원 최저가 : 2억8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